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10월 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시즌 최종전을 치른 뒤 팬들과 그라운드에서 언택트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조직개편 … 신임 단장 일주일 내 선임

2실·5개팀 체제로 … 단장 산하 운영1·2팀, 전력기획팀 신설
새 감독은 신임 단장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결정 예정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KIA타이거즈가 만사(萬事)를 위한 새판짜기에 나섰다.

KIA가 23일 효율·전문성을 고려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KIA는 이날 2실 7팀 3워킹그룹 체제를 2실(단장실·지원실) 5개팀(전력기획팀·운영1팀·운영2팀·경영지원팀·홍보마케팅팀)체제로 전환했다.

단장 산하로 운영1·2팀이 꾸려지고, 전력기획팀이 신설됐다.

전력기획팀은 각 팀에 흩어져 있던 스카우트 업무(신인 선발, 트레이드, FA, 외국인 선수)를 총괄하고, 데이터 분석 및 중장기 선수단 운영계획 수립 등 팀 전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구단 핵심 부분인 만큼 전력기획팀장은 단장 선임 후, 신임 단장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운영1팀은 1군 선수단지원과 관리를 책임지며, 최병환 책임매니저가 팀장이 됐다. 운영2팀은 퓨처스 선수단 지원 및 선수 육성을 담당하게 되며, 김잔 책임매니저가 맡는다.

지원실장 산하 지원실은 경영지원팀과 홍보마케팅팀으로 구성됐다.

지원실은 '팬서비스와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마케팅·수익성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다.

경영지원팀장으로 설진규 마케팅팀장이 선임됐고, 홍보마케팅팀은 이석범 운영지원팀장이 맡는다.

KIA 관계자는 "최근 팀 성적 부진 등 구단의 문제는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라는 큰 틀 속에 부서를 통폐합해 슬림화했다. 또한 젊은 리더들의 기용, 소통 강화와 업무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집중되던 실패의 책임을 조직 전체에 부과한 셈이다.

KIA는 주먹구구식·독선적인 운영으로 '왕조재건'이라는 목표와 달리 '총체적 난국'의 팀으로 전락했고, 잇달아 사령탑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상황을 맞이했다.

사령탑 교체로만 끝난 선례와 달리 이번에는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쇄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눈길은 이제 '신임 단장'에 쏠린다.

KIA 타이거즈는 "신임 단장은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선임해 변화하고 혁신하는 KIA타이거즈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새 감독은 신임 단장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단장은 인사의 핵심 퍼즐이자 '왕조재건'의 키플레이어가 됐다.

현장을 이끄는 사령탑 선임을 시작으로 선수단 구성과 운영의 책임자로 막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상 '감독의 감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앞서 KIA는 조계현 단장을 앞세워 '선수 출신 첫 단장'이라는 시도를 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책임은 없는 권리만 행사하면서 구단 내부는 물론 '선수 출신'으로 기대를 했던 선수들 사이에서도 혹평을 받았고, 반복만 키웠다. 각 분야의 전문성도 살리지 못하고 결국 선수단과 구단 모두 뒷걸음질쳤다.

그릇이 쇄신을 이야기 한 만큼, 또 오랜 시간 고심을 거듭하는 만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단장을 선임하는 게 이번 KIA 스토브리그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마무리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1군 선수단이 러닝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가 24일 대구FC와의 FA컵 1차전에서 접종자 구역과 미접종자 구역을 분리해서 운영한다. 사진은 경기가 열리는 광양축구전용구장. <한국프로축구연맹제공>

전남드래곤즈, FA컵 결승 백신 접종자·미접종자 구역 분리

오늘 오후 8시 대구와 1차전
위드코로나 전환 후 첫 홈경기

전남드래곤즈가 대구FC와 FA컵 결승 1차전에서 백신 접종자 구역과 미접종자 구역을 분리 운영한다.

전남은 24일 오후 8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대구와 '2021 하나은행 FA컵' 결승 1차전 홈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맞는 첫 홈경기이다.

전남은 위드코로나에 맞춰 관중석을 접종자 구역과 미접종자 구역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접종자 구역에서는 음식 및 주류 취식이 허용되며, 좌석 간 거리두기 없이 관중을 수용하게 된다.

접종자 구역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접종에 관련된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완치자도 입장할 수 있다.

미완료자는 PCR음성확인자로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의 예외자와 만 18세 이하의 관람객도 입장 가능하다.

미접종자 구역에서는 물, 음료 이외의 취식이 금지되며 좌석 간 거리두기가 이뤄진다.

S3~S5석에 마련된 미접종자 구역은 게이트 또한 별도 운영돼 남문 게이트로만 입장할 수 있다. 미접종자 구역 외 이동은 불가하다.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육성 응원도 금지되며, 관중석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부부젤라는 부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퇴장 조치될 수 있다.

구단은 육성 응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팬들에게 클래퍼를 배부할 예정이다. 손난로와 구단 엠블럼이 들어간 KF94 마스크도 선물한다.

이날 '우승 기원 랜덤 박스'도 판매한다.

전남은 우승 기원 이벤트로 오후 6시부터 경기장 북문 게이트 외곽에 위치한 용샵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랜덤박스 300개를 선착순 판매한다.

랜덤 박스는 1박스 당 3만원으로 유니폼, 클럽웨어, 롱패딩 등 의류 1종에 머플러, 사인볼, 모자 등 굿즈 1종이 담겨있다. '완판' 인기를 과시한 뉴트로 유니폼과 레트로 유니폼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FA컵 결승 1차전의 티켓은 구단 홈페이지(www.dragons.co.kr)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100% 온라인 예매로 이뤄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FIFA 올해의 남자선수상 후보 호날두·메시 포함

지소연, 여자선수 후보에 올라

한국 여자 축구의 '에이스' 지소연(30·첼시 위민)이 2년 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여자 선수'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소연은 FIFA가 23일 발표한 2021년 올해의 여자 선수 후보 13명에 포함됐다.

지소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 부문 후보에 선정됐다. 지난해엔 최종 후보 3인까지는 가지 못했다. 올해는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후보에 들며 다시 기량을 인정받았다.

지소연은 2020-2021시즌에도 첼시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팀의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WSL) 2연패와 리그컵 우승, 유럽축구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힘을 보탰다.

올해의 남자 선수상 후보로는 지난해 수상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폴란드·바이에른 뮌헨)를 필두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유벤투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바르셀로나/파리 생제르맹)가 다시 나란히 후보에 올랐다. 카림 벤제마(프랑스·레알 마드리드), 케빈 더브라위너(벨기에·맨체스터 시티), 엘링 홀란(노르웨이·도르트문트), 조르지뉴(이탈리아·첼시), 은골로 캉테(프랑스·첼시), 킬리안 음바페(프랑스·파리 생제르맹), 네이마르(브라질·파리 생제르맹), 무함마드 살라흐(이집트·리버풀)도 후보에 선정됐다.

올해의 남자 감독은 안토니오 콘테(이탈리아·인터 밀란/토트넘), 한지 플리크(독일·바이에른 뮌헨/독일 대표팀), 페프 과르디올라(스페인·맨체스터 시티), 로베르토 만치니(이탈리아·이탈리아 대표팀), 디에고 시메오네(아르헨티나·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토마스 투헬(독일·첼시)의 경쟁으로 압축됐다.

/연합뉴스

광주FC 잔류 불씨 지킨 알렉스 36라운드 베스트 11

광주FC의 잔류 불씨를 지킨 알렉스(사진)가 36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7일 열린 파이널B, 21일 진행된 파이널A 경기를 평가해 36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7일 포항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대포알 슈팅을 선보인 광주 수비수 알렉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알렉스는 0-0으로 맞선 전반 추가시간에 문전 경합과정에서 흐른 공을 잡아 오른발로 중거리 슈팅을 날렸다. 공은 골대에 이어 골키퍼 이준 맞고 포항 골망을 흔들었다.

자책골로 기록됐지만, 승기를 가져온 귀중한 슈팅이었다.

알렉스는 투혼을 다한 수비도 선보이면서 2-1 승리를 견인했다. 22번의 맞대결 끝에 기록된 포항전 첫승이자, 꺼져가던 잔류 가능성을 살린 극적인 승리였다.

한편 36라운드 MVP는 울산현대 오세훈에게 돌아갔다.

오세훈은 21일 제주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장식하며 3-1 승리에 기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